



다시 일터로...분주한 귀경길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매표 창구가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축미 방출 당장 중단하라”

“정부 쌀값 개입 중간상만 폭리”...광주·전남 농민들 秋鬪 선포식

정부의 과도한 쌀값 개입정책으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대규모 추투(秋鬪)를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맹(이하 전남연맹)은 최근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 앞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정취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벼 출하거부 광주전남 농민투쟁 선포식'을 갖고 10월부터 시·군별로 국가수매제를 통한 쌀값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야적시위와 벼 출하(수매)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남연맹은 이날 정부가 쌀값을 잡는데만 혈안이 돼 농협에 3% 이하 지원금을 내리고 2009년산 쌀을 반값에 팔아치우도록 강요하는 등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을 강압적으로 하락시켜 중간상만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초 쌀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불가인하정책으로 60만톤의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한 것은 쌀값을 자유시장경쟁에 맡기겠다는 지난해 말까지의 정책과 달리 '농민

들을 벼랑 끝에 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15일부터 농협 등에서 판매된 2009년산 비축미는 2010년산의 절반에 불과한 3만톤 미만에 소비자에게 풀리면서 쌀값 하락을 주도했다. 농협이 정부로부터 공매한 비축미는 20kg 1포대에 2만원선에 쌀도매상에 팔려나갔으며 판매경로가 일부 노점까지 확대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방출됐다.

광주지역 한 쌀 도매상은 "농협에서 2009년산 쌀 20kg 1포대에 2만원에 구입, 2만2000원에 내놓자 1t트럭 기준 최대 하루 100여대가 쌀을 구입해 되팔기에 나섰다"며 "가격이 쌀값을 내리고 2009년산 쌀을 반값에 팔아치우도록 강요하는 등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을 강압적으로 하락시켜 중간상만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난 9일 농협 전남본부를 방문, 수확기 쌀 가격의 하락을 조정하는 2009년산 저가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또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재고량인 80만t 이상의 2011년 벼를

수매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농 전남연맹 박형태 사무처장은 "수확철을 앞두고 비축미를 풀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올해 쌀 경기면적 축소와 기상재해로 30년 만의 흉년이 우려되는데다 원료곡 등의 부족으로 내년까지 쌀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수급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농은 "국가수매제 도입 전에는 단 한톨의 쌀도 정부에 팔지 않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시·군별 농민총회를 열어 벼 출하 거부를 통과 함께 10월 5일 각 시·군청사 앞에서 농기계 파업을 시작으로 야적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쌀 수매가격을 80kg 한 가마당 17만원으로 고수중이며 이에 반발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야적시위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安風 한방에... 민주당 실종

(안철수 바람)

서울시장 보선·야권통합 존재감 상실

과감한 혁신 통한 정권창출 비전 절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담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최근 불어닥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은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안 원장과 박 변호사에 갈광질광 '러브 콜'을 보내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주류-비주류로 갈려 집안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보였다.

두 번의 정권을 창출한 야권의 만행으로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는 참담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야권의 중심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제3세력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대선 구도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민주당 주자로는 손학규 대표가 명맥을 유지하고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 가능성이 없는 '불임정당'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대통합에서도 민주당은 '찬밥신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밖의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이 주축이 된 '혁신과 통합'이 사실상 야권대통합의 명분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야권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에게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칙과 전략 없이 끌려다니는 야권대통합은 결국 민주당의 분열과 소멸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민심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존재감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리더십 부재의 지도부와 내년 총선 공천에 골몰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한계가 민주당의 현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개혁 공천 및 내부 혁신안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착잡하면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무사안일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차기 정권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 추석 민심을 들여본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언이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민주당을 걱정하는 민심의 소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며 "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한명숙 “서울시장 보선 불출마”

야권 서울시장 경선구도 박원순 독주 가능성

한명숙 전 총리는 1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독주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독한 '서울시장 보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그동안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여러 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변화와 2012년의 정권교체”라며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혁신, 야권과 시민사회의 통합 그리고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불출마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천정배 최고위원과 박원순 정책위의장, 원혜영 의원,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천 최고위원과 신 전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박 정책위의장과 원 의원은 한 전 총리 불출마에 대비해 물밑 준비 작업을 해왔다.

물론 변수는 박 상임이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다. 박 상임이사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경선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당을 거부할 경우 박 정책위의장이 경선에 출마, 천 최고위원 등과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엘리체

광주 주거역사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쓴 「서진종합건설」

광주 용봉 엘리체

“최고 경쟁률 79.13:1”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용봉 엘리체

혁신 공간 부담없는 중소형 실속 타입, 남향위주 단지 배치의 혁신적인 공간 설계

생활 문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시설 밀집

쾌속 교통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 용봉 IC, 순환도로 이용으로 시내 및 시외 진출입 용이

우수 학교 오치중등학교, 하백초등학교, 고려중학교, 용봉중학교, 고려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인접

시행 **에스이엔씨유한회사**

시공 **(주)서진종합건설**

지회사 **VISION (주)에스엔에스비전**

총공사 **동일산업주식회사**

59㎡ / 84㎡ 총 430세대

문의 062)573-4400

59㎡(구27)/270세대

84㎡(구36)/160세대

계약자를 위한 대박프로젝트

대박찬스 > 계약착한 14일(수) 계약자를 위한 경품이벤트

계약기간

2011. 09. 14(수), 15(목), 16(금)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홍보물에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되었습니다.